

## 해외 어학 연수 후 대학생들의 영작문에 나타난 영문법 분석\*

차미양\*\*  
남서울대학교  
신인영  
남서울대학교

**Cha, Miyang & Shin, Inyoung. (2013). An analysis of English grammar in university students' English compositions after studying abroad. *Modern English Education*, 14(1), 297-323.**

In an attempt to explore the effects of overseas language programs on learning English grammar,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English grammar used by Korean university students who joined an overseas language training program for a semester. 27 students participated in a semester-long exchange student program at a university in the Philippines. For data collection, pre- and posttests were conducted at the beginning and at the end of the semester. Written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period to discern differences in the use of three grammatical items (infinitives, verbs, and participles),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arried ou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as a whole gained lexical fluency, producing longer sentences embedded with a larger number of words in more complex structures after studying abroad for a semester. Also, a higher frequency in the usage of the grammatical items was observed despit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rrors in syntactic and lexical use. It was revealed that while the students attained control over morphological items, their grammatical accuracy in syntactic and lexical use showed no significant improvement during a semester abroad.

[foreign language learning/overseas language training program/English grammar/  
외국어학습/해외어학 연수/영문법]

---

\* 이 논문은 2012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1 저자: 차미양, 교신저자: 신인영

## I. 서론

언어에서 어떤 문장이 허용되고 어떤 문장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아는 것이 문법적 능력이며(Bachman, 1990), 이는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지극히 기본적인 능력이 된다. 그러나 문법적 능력이란 단순히 문법적 규칙을 아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문장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언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가리킨다(한지운, 2008).

문법은 언어의 4가지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언어기능들은 문법규칙을 이용하여 표현되기 때문에 문법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의사소통에 한계가 올 수 있다. 이는 문법적 능력이 말을 알아 듣고 이해하며 또 말하고 쓰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언어능력이기 때문이며,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문법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해외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 학기 영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교환학생들을 파견하고, 매년 다수의 대학생들이 영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오면 영어능력이 향상된다는 막연한 인식만 있을 뿐 실제 어떤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지 그 효과가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학생들이 향상된 영어실력을 보이기도 하는 반면에 한 학기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팽배하다. 이는 정규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적,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개인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해외어학연수의 효과가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해외어학연수와 관련된 연구, 특히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영문법 향상에 대한 효과 여부를 실험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한 학기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해외어학연수 특성상 연구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다, 문법적 능력 향상을 실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국외에서도 대부분의 해외어학연수 관련 연구들은 구어적 능력이나 유창성에 대한 조사(Brecht, Davidson & Ginsberg, 1995; DeKeyser, 1991; Freed, 1995; Guntermann, 1995; Huebner, 1995; Lafford, 2004; Lapkin, Hart & Swain, 1995)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문법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의 EFL 학습환경과 달리 해외어학연수는 집중적인 언어훈련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주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목표언어에 노출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므로 언어적 요소들의 자연적 습득이 촉진될 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 및 유창성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문법적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Canale & Swain, 1980)이며, 의사소통 능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Bachman, 1990)는 사실은 영어학습에서 문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 능력이란 유창성과 더불어 정확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한지운,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외어학연수의 학습환경적 이점이 문법적 능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해외대학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영어를 학습한 대학생들의 영작문에 나타난 문법의 사용과 오류를 조사하여 해외어학연수 후 학생들의 영문법 향상을 고찰하고, 나아가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영문법 능력 향상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해외어학연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가 모국어 또는 제 2언어로 사용되는 나라에서 그 외국어를 학습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에 해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외국어 학습을 위해 해외어학연수 길에 오르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어를 학습하는 상황과 그 외국어가 모국어 또는 제 2언어로 사용되는 해외에서 학습하는 상황은 다를 수 있다. 학습상황의 제 2언어습득 과정에서의 역할 및 효과성은 1970년대 들어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Hymes(1974)가 학습환경, 학습자, 의사소통 목적 등과 같은 학습상황 요인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부터 학습상황은 제 2언어습득 분야의 주요 연구영역이 되었다. 최근 들어 해외어학연수의 제 2언어습득 및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주제와 관련한 연구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 동안 발표된 해외어학연수에 관한 연구들은 해외어학연수가 외국어 학습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Marriott(1995)는 이에 대한 이유로, 해외어학연수 동안 학생들이 집중적인 언어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국내의 제한된 학습상황에서는 습득하기엔 어려운 언어기능들을 습득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언어습득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동안 이루어진 해외어학연수 관련 연구들은 연구주제에 따라, 해외어학연수의 언어학습에의 이점(Brecht, Davidson & Ginsberg, 1995; Lapkin, Hart & Swain, 1995), 해외어학연수 환경에서 사회언어학적 능력의 습득(Marriot, 1995; Regan, 1998), 해외어학연수 동안 사회적 접촉 정도와 언어사용의 연관성(Freed, Segalowitz & Dewey, 2001), 학습자들의 해외어학연수에 대한 인식(Brecht & Robinson, 1995; Pellegrino, 1998) 및 해외어학연수와 국내 학습상황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효과 비교(Carroll, 1967; M. Cha, 2010; Cox & Freed, 1988; DeKeyser, 1991; Dyson, 1988; Freed, 1995; Guntermann, 1995; Huebner, 1995; Lafford, 2004)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 중, 해외어학연수와 국내 학습상황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은 다시 조사한 영역에 따라, 듣기능력(Carroll, 1967), 문법적 형태소 및 어휘사용(M. Cha, 2010; DeKeyser, 1991; Guntermann, 1995), 유창성(Freed, 1995), 통사적 능력(Huebner, 1995), 그리고 의사소통 전략(DeKeyser, 1991; Lafford, 2004)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해외어학연수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한 최초의 연구는 Carroll(1967)에 의해 이루어졌다. Carroll은 외국어 어학훈련을 받은 2,782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듣기능력을 측정한 결과, 해외어학연수를 받은 학생들이 국내에서 해당 언어를 학습한 학생들보다 더 나은 것을 발견하였다. Dyson(1988) 역시 프랑스, 독일 및 스페인에서 1년씩 어학연수를 받은 22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였더니 학생들의 듣기 및 말하기 능력 모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는데, 특히 언어능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서 더 많은 향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Cox와 Freed(1988)는 해외어학연수를 받은 학생들이 국내의 학생들 보다 문법적 제어능력이 더 향상하였고, 특히 문법을 더 원어민과 비슷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구어적 유창성을 조사한 Freed(1995)는 국내에서 학습한 학생들에 비해, 해외어학연수를 받은 학생들이 훨씬 더 쉽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하는 내용이 더 다양하고, 더 빠른 속도로 말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중간에 휴지(pause) 사용이 훨씬 더 적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언어능력 향상 정도를 조사한 연구들(Huebner, 1995; Lapkin, Hart & Swain, 1995)은 해외어학연수가 언어능력수준이 높은 학생들보다 낮은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의사소통 전략 관련 연구들은 해외어학연수를 받은 학생들이 더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들을 사용하고 더 효과적으로 대화하며(DeKeyser, 1991), 또한 분당 사용하는 단어 수가 증가하고 전반적인 토론능력과 표현능력이 향상되었다(Lafford, 2004)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어학연수 관련 선행연구 결과들은 해외어학연수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나타내고, 또한 해외어학연수의 긍정적인 면을 국내 학습환경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외국어 교수 및 학습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2. 영문법

### 1) 문법의 정의

문법이란 언어에 내재한 규칙의 총체를 말하며 그 규칙에는 단어나 문장의 구조에 관한 규칙과 구문 속에 들어 있는 문법적 특성이 포함된다(김미진, 2006). Francis(1954)는 문법이란 문장의 구성요소와 그 구조에 관한 제반 규칙의 집합이라고 하였고, Chomsky(1965)는 문법이 어떤 언어의 모어 화자가 자신의 언어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말하는 모어 화자의 언어능력에 대한 모델이라고 하였다. Weaver(1979)에 의하면, 문법은 문장구조, 어법에 대한 설명, 문장을 이해하고 만드는 과정 또는 이런 모든 것의 종합으로 규정되고, Brown(1994)은 문법을 문장 안에서 낱말의 전통적인 배열과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체계, Thornbury(1999)는 언어적 연결(chain)과 위치(slots)에 대한 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문법은 옳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단어들을 결합하는 규칙, 또는 어떤 언어로 무수히 많은 다양한 문장을 산출할 수 있게 하는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

## 2) 문법능력의 중요성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의 역할 및 중요성은 교수법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였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이 의사소통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에 들어 변화를 맞게 되었다. 다수의 언어학자들은 오히려 바르고 정확한 문법지식을 통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문법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Celce-Murcia, 1991; Widdowson, 1979). Widdowson(1979)은 문법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소통에 경제성을 부여하는 요인이며, 이는 문법이 의사소통에서 가장 자주 되풀이되는 보편적인 의미의 측면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의사소통 능력과 문법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였다. 예를 들어, Canale과 Swain(1980)은 의사소통 능력이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 담화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 반면, Bachman(1990)은 의사소통 능력을 언어능력, 전략적 능력, 심리생리적 기제로 구분하고, 문법적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arsen-Freeman (2001)은 언어를 형태, 의미, 사용의 삼차원적인 요소로 구분하고, 이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요소 중의 하나라도 없으면 제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문법 능력은 말을 알아 듣고 이해하며 또 말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언어능력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문법적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3) 문법교육의 필요성

문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며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Celce-Murcia(1991)은 문법은 학습자가 외국어의 규칙과 형태를 내면화하여 그

언어를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문법을 통해 언어능력을 향상시켜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내포한다. 문법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여러 학자들 중, Brumfit(1984)은 학습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요소들은 임의적인 것보다 학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법 교육은 언어형태를 많이 연습시킬 수 있고 학습자들이 좀 더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고, Pienemann(1984)는 문법 지도가 학습자로 하여금 더 빠르게 목표언어 구조를 습득하게 하며 그 언어구조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하였다. Celce-Murcia(1991)은 문법 지도를 하지 않은 외국어 수업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표현을 원 어민이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다고 인지하면 학습자 스스로 어느 정도 유창하다고 생각하여 발음, 문법적 정확성 또는 단어 사용의 적절성에 관계없이 계속 그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 학습은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이 정체되는 현상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Thornbury(1999)은 문법이 (1)학습자들로 하여금 무제한의 언어적 창조성을 가능하게 하며, (2)보다 명료하고 적절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의미의 애매함을 수정하게 하고, (3)어느 단계나 수준 이상으로의 언어적 발달을 저해하는 화석화를 방지하며, (4)나중에 일어날 언어적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조직자의 역할을 하고, (5)언어를 개별 항목으로 나누고 유한한 규칙으로 정리해 줌으로써 방대한 어학학습과제의 양을 줄여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소화 가능하게 하며, (6)교사에게 구조화된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적 단계에 따라 학습자를 가르치고 검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7)학습자들이 어학 수업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학습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므로 문법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문법 지도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효과를 조사한 여러 연구들은 문법 지도가 언어습득을 촉진하고(Larsen-Freeman & Long, 1991), 의사소통 시 언어적 정확성을 높여준다(Pienemann, 1984)는 결과들을 발견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의 한 4년제 사립대학교 재학생 2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필리핀의 한 현지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한 학기 동안 외국학생들을 위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어를 학습하였다. 교환학생들은 16명의 남학생들과 11명의 여학생들로 구성되었고, 전공과 학년이 다양하였으며 연령대는 20-26세이었다. 연구대상 학생들은 본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 영어를 약 7-12년 정도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어느 학생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해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은 경험은 없었다.

학생들은 15주 기간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에서 일주일에 5일, 하루에 6시간씩 영어로 진행되는 정규 영어수업(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 등)을 수강하였고, 30시간 중 영작문 수업은 4시간이었다. 본 어학연수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영문법 수업은 편성되지 않았고, 학생들은 작문시간에 영문법을 학습하였다. 본 어학연수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학점은 한국 본교에서 교환학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였으며, 또한 이들은 정규수업 이외에도 매일 현지 체험활동을 통해서, 또는 기숙사나 학교 주변 등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았다.

## 2. 자료 수집<sup>1)</sup>

### 1) 영어능력 시험

연구 대상 학생들의 인적 사항 및 영어학습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그들의 영어능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TOEIC시험 유형의 영어능력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은 학생들의 인적 사항 관련 문제 이외에, TOEIC 시험 기출문제들에서 문법(10문제), 어휘(10문제) 및 독해(10문제)를 발췌하여 총 30문제로 구성되었다(부록 참조). 본 시험은 연구 참여학생들이 필리핀 현지 대학으로 출발하기 일주일 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총 30점 만점에 평균 17.2점(표준편차: 6.184)을 획득하였다.

### 2) 사전-사후 테스트

한 학기 동안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어를 학습한 학생들의 영문법 사용면의 변화 및 어학연수 전과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 참여학생들에게 한 학기의 시간차를 두고 두 개의 영작문을 실시하였다. 사전시험은 필리핀 현지대학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개강한 첫 주에 실시되었고, 사후시험은 마지막 주에 실시되었다. 영작문 주제들은 학생들의 영어능력 수준과 처음 참가하는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에서의 시험에 대한 부담 등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작성할 것으로 여겨지는 주제들(사전시험: **Introducing Myself**, 사후시험: **Vacation Plans**)로 선정하여 제시하였으며, 두 시험 모두 성적이 반영되는 정규시험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두 시험의 영작문 주제들은 연구자가 준비하였고 필리핀

<sup>1)</sup> 본 연구는 필리핀 H 대학과의 연구프로젝트(2008년)에서 수집한 연구자료의 일부를 사용함.

현지대학 측과 협의하여 두 시험들을 시행하고 학생들이 작성한 영작문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SPSS 18.0을 이용하여 사전·사후영작문에 나타난 각 문법 영역별 사용 및 오류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구한 뒤, 각 항목별로 대응표본 t-value 검증을 실시하여 사전·사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측정하였다.

### 3. 자료 분석

한 학기 해외어학연수의 대학생들의 영문법 학습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이 한 학기의 시간차를 두고 작성한 사전시험과 사후시험은 학생들의 영문법 사용면의 변화 및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먼저, 사전·사후 각각의 영작문에서 학생들이 사용한 평균 단어 수, 문장 수, 문장길이 등 전반적인 작문의 구성적인 요소들을 측정하였고, 이어서 오류분석을 통해 사전·사후영작문에 나타난 전체 문법오류들을 파악하였다. 오류들은 문법 영역에 따라 구문적 오류, 어휘적 오류 및 어형적 오류로 분류되어 각 영역별 오류 빈도수와 비율 등을 조사하였고, 영역별 오류는 다시 총 21개의 세부항목(구문적 오류: 11, 어휘적 오류: 5, 어형적 오류: 5)으로 구분되었다.

문법은 문장의 통사적, 어휘적 및 어형적 구성요소와 그 구조에 관한 제반 규칙들이 결합하여 많은 세부항목들을 포함하는 방대한 분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문법 영역에서 동사의 활용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 중 사전 영작문에서 오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세 가지 항목(부정사-구문 영역, 동사-어휘 영역, 분사-어형 영역)에 국한하여 각 항목별 사용 및 오류를 분석하였다. 동사는 형태와 특성을 달리해 통사적, 어휘적 및 어형적 요소로 문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항목이다. 오류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은 학생들이 해당 항목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한 학기 기간의 해외어학연수 동안 학생들이 이 세 가지 문법항목들에 대한 학습 및 사용 능력이 증진하였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사전·사후 영작문 분석결과

해외어학연수 전에 작성한 영작문과 한 학기 동안 연수를 받은 후 작성한 영작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사전·사후 각각의 영작문에 나타난 평균 단어 수, 문장 수 및 문장길이 등을 분석한 뒤,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기 위해 대응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사전·사후 영작문 분석결과

항목	사전시험(N=27)		사후시험(N=27)		t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작문길이	183.11	55.961	201.00	93.133	-1.093	.284
문장 수	21.89	6.606	18.07	10.224	2.078	.048*
문장길이	8.50	2.154	11.58	2.122	-5.295	.000*

\* $p < .05$

표 1에 나타나듯이, 사전영작문에 비해 사후영작문의 구성적 요소들이 더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후영작문의 평균길이(201단어)는 사전영작문(183.11단어)보다 약 9.77%정도 늘어났고, 평균 문장길이(사전: 8.50단어, 사후: 11.58단어)도 약36.2%정도 증가한 반면에, 평균 문장 수(사전: 21.89, 사후: 18.07)는 약 17.5%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받은 후에 한 문장에 더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긴 문장들을 써서 전체적으로 영작이 길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학연수 동안 학생들의 문장에 대한 구문 능력이 증진한 것을 시사한다.

특히 사전·사후영작문 사이의 대응표본 검정 유의확률은 문장 수(.048)와 문장길이(.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장이 길어졌다는 것은 문장의 구조가 더 복잡해졌다는 것을 내포하며, 이는 학생들이 사후 영작에서 더 복잡한 구조의 영어문장들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두 영작문간의 상관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유의확률도 작문길이(.022)와 문장길이(.010)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사전·사후영작문 사이에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전영작문에서 문장을 길게 쓰고 영작도 길게 한 학생들이 사후영작문에서도 둘 다 길게 작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문법 항목별 사용 분석결과

한 학기 해외어학연수 후 학생들의 영문법 사용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세 문법 영역에서 동사의 활용과 관련이 있는 한 항목씩(부정사, 동사, 분사)을 선택하여 사전·사후 각각의 영작문에 나타난 세 개 항목의 사용 빈도수와 사용 유형 등을 조사한 뒤, 각 항목별 사용에 대한 사전 대 사후 대응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자료 분석에서는 오류는 사용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표 2는 문법항목별 사용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표 2  
문법항목별 사용 분석결과

문법항목	사전시험(N=27)		사후시험(N=27)		t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정사	2.70	1.814	6.89	4.423	-4.816	.000*
동 사	33.37	8.962	34.67	16.295	-.458	.651
분 사	4.11	2.309	4.63	2.989	-.442	.403

\* $p < .05$

학생들은 어학연수를 받은 후에 평균적으로 세 가지 문법항목들 모두 더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구문영역에 속하는 부정사의 사용(사전: 2.7, 사후: 6.89)은 사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유의수준 내의 유의확률(.000)도 사전·사후영작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어휘영역을 대표하는 동사(사전: 33.37, 사후: 34.67)와 어형적 항목인 분사(사전: 4.11, 사후: 4.63) 사용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사후영작문에서 부정사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어학연수 동안 학생들의 부정사 용법에 대한 이해가 증진한 것을 반영한다.

#### 1) 부정사(Infinitives)

‘to+동사원형’ 형식을 취하는 부정사는 구문적 영역에 속하면서 명사적, 형용사적 및 부사적 용법 등으로 문장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표 3은 사전·사후영작문에 나타난 부정사의 세부항목별 사용에 대한 분석결과이며, 각 항목별 사용 유형에 해당하는 예문들을 학생들의 영작문에서 발췌하여 오류 수정 없이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어학연수를 받은 이후에 그들의 영작문에서 두 배가 넘는 수의 부정사(사전: 66, 사후: 152)를 더 다양한 유형(사전: 8, 사후: 9)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영작문에서 부정사 사용의 증가율은 무려 130.30%에 해당하고, 이런 큰 폭의 상승폭과 유의수준 내의 유의확률 (.000)은 사전·사후영작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사전 대 사후 부정사 사용에 대한 상관계수 유의확률 (.044)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사후 두 영작문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전영작문에서 부정사를 많이 사용한 학생들이 사후영작문에서도 부정사를 많이 사용한 것을 나타낸다.

표 3

부정사 사용 분석결과

사용 항목	사전시험 (N=27)	사후시험 (N=27)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전체 사용수	66	152	.000*	.044*
동사의 목적어	33	96		
부사적 용법(목적)	16	23		
부사적 용법(원인)	8	2		
진 주어	4	4		
주격 보어	2	14		
형용사적 용법	1	7		
진 목적어	1	2		
구문	1	1		
목적격 보어	0	3		

\* $p < .05$

- (1) 동사의 목적어: So I decided to go to the Philippines for my improvement.
- (2) 부사적 용법(목적): I should learn English to achieve my dream of becoming a flight attendant.
- (3) 부사적 용법(원인): I was so scared to talk with foreigners.
- (4) 진 주어: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foreign guests.
- (5) 보어(주격): First, my plan is to get a part time job as I need money for my study..
- (6) 형용사적 용법: It is a time to relax, enjoy and have fun.
- (7) 진 목적어: Many Philippine peoples find very difficult to call my name.
- (8) 구문: I used to be shy but I was able to overcome.
- (9) 보어(목적격): These plans will help me to gain more self confidence in speaking English language.

학생들은 총 9개의 세부항목들 중 사전·사후 두 영작문 모두에서 부정사를 ‘동사의 목적어’(예문1)로 사용하는 문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사전: 33, 사후: 96). 이것은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을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법이며, 사후영작에서 이런 유형의 증가율(190.91%)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예문(2)와 같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한 형태로서(사전: 16, 사후: 23) 사후에 그 사용빈도가 현저히 증가(43.75%)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후영작의 주제(방학계획)에 따른 현상일 수 있다. 반면에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예문3)은 감소하였다. 또한

예문(5)처럼, 부정사가 주격보어인 경우는 사후영작에서 큰 폭으로 상승(사전: 2, 사후: 14)하였는데, 이 또한 사후영작의 주제에 따른 표현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목적격 보어로 부정사가 사용된 유형(예문9)은 사후영작문에서만 발견되었는데, 이 것은 학생들이 어학연수 이후 복잡한 구조의 문장에서 더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동사(Verbs)

사전·사후 영작문에서 사용된 전체 동사 수와 동사 유형수를 파악한 뒤, 두 영작문간에 대응표본 유의도 검증을 실시한 분석결과가 표 4에 나타나있다.

표 4  
동사 사용 분석결과

사용 및 오류 항목	사전시험 (N=27)	사후시험 (N=27)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전체 사용수	901	936	.651	.021*
전체 유형수	488	505	.617	.019*

\* $p < .05$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어학연수 이후에 더 많은 수의 동사를 더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동사 사용량(사전: 901, 사후: 936)은 사후에 약 3.88% 정도 증가하였고, 동사 유형(사전: 488, 사후: 505)도 약 3.48% 정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 수와 동사 유형의 증가는 통계적 의미를 부여할 만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사전·사후 두 영작문간의 상관계수 유의확률은 동사 사용수(.021)와 동사 유형(.019)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두 영작문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전영작문에서 더 많은 수의 동사를, 더 다양한 종류로 사용한 학생들이 사후영작문에서도 동사를 더 많이 또 더 다양하게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한 학기 어학연수 동안 학생들의 동사 사용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분사(Participles)

동사 끝에 ‘ing’/‘ed’를 부착한 형태의 분사는 문장 내에서 동사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어형적 요소로서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두 가지로 나뉜다. 학생들의 사전·사후영작문에 나타난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총 사용횟수와 분사 종류별 세부항목에 따른 사용 빈도수를 조사하고 유의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에 나와있다.

표 5  
분사 사용 분석결과

사용 항목	사전시험 (N=27)	사후시험 (N=27)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현재분사 사용	38	66	.044*	.287
진행시제	30	42		
명사수식	3	17		
보어	3	4		
분사구문	2	4		
과거분사 사용	46	50	.443	.094
수동태	27	14		
완료시제	12	28		
보어	4	3		
명사수식	2	3		
구문	1	2		

\*p < .05

- (10) 진행시제: I am spending interesting time here in the Philippines.
- (11) 명사수식: I must study hard during remaining time.
- (12) 보어: Now, everything is interesting in the Philippines.
- (13) 분사구문: We'll have good time, talking and sharing our experiences.
- (14) 수동태: I was born in Seoul in 1984.
- (15) 완료시제: I wonder how much my English ability has improved.
- (16) 보어: I was nervous and felt irritated because I didn't understand what they mean.
- (17) 명사수식: The most awaited part in a student's life is vacation.
- (18) 구문: I didn't quite get used to the school life before my service and my grades suffered.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사전(84회)보다 사후(116회)에 약 38.09%정도 분사를 더 많이 활용하였다. 이 중 현재분사(사전: 38, 사후: 66)는 73.68%증가하였고, 과거분사(사전: 46, 사후: 50)는 8.70%상승하여, 학생들은 어학연수 후 과거분사보다 현재분사를 현저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 두 분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표본 검정 결과도 이를 증명한다. 즉, 과거분사 사용량의 증가는 사전영작에 비해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반면에, 현재분사(유의확률 .044)는 두 영작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연수 전에는 과거분사가 현재분사보다 더 많이 쓰인 반면, 후에는 그 반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전·사후시험의 주제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현재분사는 두 영작 모두에서 4가지 유형으로 사용되었다. 그 중 진행시제를 나타내는 문맥(예문10)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고(사전: 30, 사후: 42), 이어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용법(예문11)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특히 형용사 용법은 현재분사 사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사전: 3, 사후: 17)을 나타내며, 이는 어학연수 동안 학생들의 현재분사에 대한 이해가 증진하고 현재분사가 그들의 형용사 어휘목록(repertoire)에 포함된 것을 반영한다.

반면에 과거분사는 현재분사와는 다른 양상을 띠면서 5가지 형태로 사용되었다. 사전영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동태(예문14) 문장에서의 사용은 사후에 약 반 정도로 감소(사전: 27, 사후: 14)하였고, 반대로 완료시제의 사용(예문15)은 두 배 이상 상승(사전: 12, 사후: 28)하였다. 사전영작문에서 수동태 사용이 빈번했던 것은, 예문(14)와 같이, 영작 주제(자기소개)에 따른 표현이 많았기 때문이고, 사후영작문에서 완료시제가 많이 시도된 점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이것은 학생들이 어학연수 동안 시제 항목에 대한 학습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과거 두 분사 사용의 상관관계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지 못한다.

### 3. 문법 항목별 오류 분석결과

사전·사후 각각의 영작문에 나타난 전체 문법 오류 수와 비율을 파악하고, 오류 유형에 따라 구문오류, 어휘오류 및 어형오류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오류항목, 빈도수와 비율 등을 조사한 뒤, 이들 오류들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 통계 처리한 결과가 표6에 나타나 있다.

대체로 학생들은 어학연수 이후에 오류(사전: 568, 사후: 704)를 더 많이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작문 길이의 증가와 오류비율의 증가를 비교해볼 때, 영작문 길이(사전: 4,944단어, 사후: 5,427단어)는 9.77% 증가한 반면, 오류비율(사전: 11.49%, 사후: 12.97%)은 약 1.48% 증가한 것으로, 오류비율의 상승폭이 영작문 길이의 증가율에 비해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오류수의 유의확률이 .204로서, 사전·사후영작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은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받은 후에 더 많은 문법오류를 범한 이유로는, 사전시험의 영작주제(자기소개)에 비해 사후시험의 주제(방학계획)가 영어로 표현하기에 더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고, 또한 문장이 길어지면 문장구조가 그만큼 복잡해져서 정확히 문장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6

문법 영역별 오류 분석결과

문법영역	사전시험 (N=27)	사후시험 (N=27)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전체 단어수	4944	5427	.284	.022*
전체 오류수(비율)	568(11.49%)	704(12.97%)	.204	.071
구문오류	359(63.21%)	494(70.17%)	.071	.294
어휘오류	121(21.30%)	164(23.30%)	.153	.011*
어형오류	88(15.49%)	46(6.53%)	.034*	.270

\* $p < .05$

문법 영역별 오류 분석결과, 학생들의 오류는 총 21개의 항목(구문오류: 11, 어휘오류: 5, 어형오류: 5)에서 나타났고, 이 중 구문오류(사전: 63.21%, 사후: 70.1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두 번째로 어휘오류(사전: 21.30%, 사후: 23.30%)가 많았으며, 어형오류(사전: 15.49%, 사후: 6.53%)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역별 오류 비중 패턴은 사전·사후 두 영작문 모두에서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문오류는 6.96%, 어휘오류는 2.0% 증가한 반면, 어형오류는 약 8.96% 정도 감소하였다. 특히 어형오류의 유의도 검정 결과는 두 영작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유의확률 .034)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사후영작문에서 어형적 오류수가 의미 있는 수준에서 감소한 것으로,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받은 이후 문법적 형태소에 대한 정확성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형적 요소들은 문장 내의 구문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어형적 오류는 의사소통 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형적 문법규칙들을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영문법의 통합적인 기능을 잘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사전·사후 두 영작문 사이에 영역별 오류들의 상관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유의확률도 세 영역 중 어휘오류가 유의수준 내(.011)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인다. 이는 사전영작에서 어휘오류를 많이 범한 학생들이 사후영작에서도 같은 종류의 오류를 많이 생성하였다는 것이다. 어휘오류 수와 동사 사용량에서 모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전에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어휘오류도 많이 범한 학생들이 사후에도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 어휘오류 또한 더 많이 만들었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어학연수 이후 학생들의 어휘 사용 능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1) 부정사(Infinitives)

사전·사후 각각의 영작문에 나타난 부정사의 전체 오류 수, 오류비율 및 오류 유형별 빈도수에 대한 분석과 유의도 검정결과가 표 7에 제시하였다. 각 항목별 오류유형에 해당하는 예문들은 학생들의 영작문에서 발췌하였고, 오류를 수정한 문장을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표 7

## 부정사 오류 분석결과

오류 유형	사전시험 (N=27)	사후시험 (N=27)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전체 오류 수(비율)	10(15.15%)	33(21.71%)	.001*	.069
to 누락(omission)	5	22		
to 대신 for 사용	3	4		
to 삽입(insertion)	1	4		
동명사 사용	1	3		

\* $p < .05$ 

- (19) to 누락: Anyway my first plan is go back to Korea ...  
[Anyway my first plan is to go back to Korea...]
- (20) to 누락: I want study English and I went to Philippines.  
[I want to study English and I went to the Philippines.]
- (21) to 대신 for 사용: I'll go there for eight months for improve my major.  
[I'll go there for eight months to improve my major.]
- (22) to 삽입: I need to English for get a job.  
[I need English to get a job.]
- (23) to 삽입: I cannot do anything but to study English.  
[I cannot do anything but study English.]
- (24) 부정사 대신 동명사 사용: I wanted working in there from old time.  
[I wanted to work there for a long time.]

한 학기 어학연수를 받은 후 학생들이 부정사를 더 많이 활용한 것과 비례해 부정사 관련 오류도 더 많이 범하였다(사전: 10, 사후: 33). 오류비율은 약 6.56% 증가하였고, 유의도 검정 유의확률(.001)도 사전·사후 영작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부정사 오류는 두 영작문 모두에서 4가지 유형으로 발생하였다. 그 중 부정사의 'to'가 누락(omission)된 경우(사전: 5, 사후: 22)가 가장 빈번하였고, 이러한 오류는 사후영작문에서 현저한 증가율을 보인다.

부정사의 'to'는 전치사 'to'와 그 성질이 매우 다르다. 전치사 'to'는 의미를 지니는 의미론적인 요소인 반면에 부정사의 'to'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능적인 요소일 뿐이다(Radford, 1997). 부정사의 'to' 누락 현상은 주로 부정사가 주격보어 역할을 하는 문맥(예문19)과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예문20)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to' 누락 현상은 부정사가 주격보어로 사용된 경우와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에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전자의 경우는 부정사가 주격보어로 쓰인 문장에서 모두 'to' 누락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규칙적인 특성을 나타낸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어느 문장에서는 옳게 쓰기도 하고 다른 문장에서는 'to'가 누락하기도 하는 불규칙적이고 임시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볼 때, 부정사가 주격보어 역할을 하는 문장에서의 'to' 누락은 학생들이 부정사 용법을 정확히 익히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에서 'to' 대신 전치사 'for'를 사용한 케이스(예문21)도 사전에 비해 사후에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영작할 때 한국말로 직역을 해서 '~하기 위해서'에 해당하는 전치사 'for'를 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해외어학연수를 받아도 영문 작성 시 모국어의 간섭현상은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to'가 불필요하게 삽입된 오류는 주로 학생들이 need to나 try to와 같은 표현을 자주 접하면서 뒤에 동사가 없는 경우에도 습관적으로 'to'를 사용(예문22)하거나 또는 특정 구문을 정확히 익히지 못해 to가 삽입된 경우(예문23)에 일어났다. 다음으로,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뒤에 부정사 대신 동명사를 사용한 오류(예문24)는 사후에 증가하였지만 대체로 오류 빈도가 낮은 편이었다. 이런 유형의 오류가 적었던 것은 학생들이 부정사 또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에 대한 이해가 높았기 보다는 주로 그들이 자주 접하는 동사들(예: want, need, try 등)을 많이 반복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2) 동사(Verbs)

다음 표 8은 사전·사후 두 영작문에서 파악된 동사의 전체 오류 수, 오류비율 및 오류 유형별 빈도수에 대한 분석과 이들 오류에 대한 대응표본 유의도 검정 결과이다. 어휘오류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동사는 어학연수를 받은 후 사용량이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류 또한 더 많이 발생하였다(사전: 45, 사후: 62). 하지만 사후에 동사 오류비율의 상승률(1.63%)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지 않는다(유의확률 .137). 반면에 사전 대 사후 동사 오류들 사이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유의확률 .025)가 있는 것을 볼 때, 사전영작문에서 동사 오류를 범한 학생이 사후영작문에서도 동일하게 오류를 범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한 학기 어학연수 동안 그 학생들의 동사 사용능력이 크게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 동사 오류 분석결과

사용 및 오류 항목	사전시험 (N=27)	사후시험 (N=27)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전체 오류 수(비율)	45(4.99%)	62(6.62%)	.137	.025*
누락(omission)	20	25		
일반동사	14	15		
Be 동사	6	10		
삽입(insertion)	13	8		
Be 동사	13	5		
일반동사	0	3		
잘못 선택 (wrong choice)	11	23		
명사형 사용	1	6		

\* $p < .05$ 

- (25) 일반동사 누락: Then I will admission to flight school in Australia.  
[Then I will gain admission to flight school in Australia.]
- (26) be동사 누락: Almost computer programs made by English.  
[Almost all computer programs are made in English.]
- (27) be동사 누락: I think Japan better than Korea in marketing.  
[I think Japan is better than Korea in marketing.]
- (28) be동사 삽입: Many Philippio is get married so early.  
[Many Filipinos get married so early.]
- (29) 일반동사 삽입: I will go to travel Japan because I want study Japan's marketing....  
[I will travel to Japan because I want to study Japan's marketing...]
- (30) 동사 잘 못 선택: Many Philippine people find very difficult to call my name.  
[Many Filipinos find it very difficult to say my name.]
- (31) 동사 잘 못 선택: I had worked before I went here.  
[I had worked before I came here.]
- (32) 동사 대신 명사형 사용: I can't communication with them.  
[I can't communicate with them.]

동사 오류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발생했다. 이 중 동사가 누락된 경우가 제일 많았고 이 현상은 일반동사에서 더 빈번히 일어났다. 예문(25)에서 보듯이, 조동사 뒤에서 본동사가 생략(사전: 14, 사후: 15)된 경우로 이런 현상은 규칙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학생들이 조동사를 동사로 사용한 것으로서 조동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드러낸다. 또한 be동사의 생략(사전: 6,

사후: 10)은 수동태(예문26)와 문장구조를 혼돈하는 경우(예문27)에서 발생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동사가 불필요하게 삽입된 유형(사전: 13, 사후: 8)도 발견되었지만, 이러한 오류들은 사후영작에서 감소하였다. 불필요한 동사 삽입은 일반동사(사전: 0, 사후: 3)보다는 be동사(사전: 13, 사후: 5)에서 더 현저했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be 동사 삽입에 대해 H. Hahn(2000)은, 한국의 영어학습자들은 영어의 기저구조를 ‘S be X’의 형태로 이해하여 ‘be’를 포함하는 술어구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흥미롭게도 대학생들의 이러한 영어구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본 영작문(예문28)에서도 나타나지만, 이런 현상은 어학연수 후 많이 개선되어 be 삽입 오류는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일반동사의 삽입은 사후영작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문(29)과 같이 학생들이 우회적 표현을 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사 오류들 중 사후에 가장 증가율이 높은 유형은 동사를 잘못 선택한 경우이다(사전: 11, 사후: 23). 학생들은 대체로 한국어를 직역하여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예문30)하거나, 또는 come-go와 같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 유사 동사들을 잘 못 사용(예문31)한 케이스도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들은 모국어 간섭현상에 의한 것과 목표언어 규칙들의 복잡성이나 단어들의 의미론적 특성에 대한 혼돈에 의해 빚어진 것으로, 주로 목표언어 규칙의 복잡성과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동사대신 명사가 사용된 유형(예문32)도 나타났는데, 이런 유형의 오류가 사후영작문에서 증가한(사전: 1, 사후: 6) 것을 볼 때, 어학연수 동안 학생들의 동사 어휘력이 증가한 반면에 문장 속에서 동사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문법적 능력은 그 만큼 향상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 3) 분사(Participles)

사전·사후영작문에서 발견된 현재/과거분사 오류들에 대한 분석결과가 다음 표 9에 정리되어 있다. 학생들은 어학연수 이후 분사를 더 정확히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영작문에서 두 분사의 전체 오류수가 감소(사전: 15, 사후: 11)하였지만 사전영작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현재분사 오류는 주로 현재분사를 동사로 사용(예문33)한 경우와 진행시제 문장에서 ‘ing’가 누락된 케이스(예문34)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발생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학생들이 현재분사가 문장에서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혼돈하는 데서 빚어진 현상으로 두 영작(사전: 5, 사후: 4)에서 모두 발견된 반면에, ‘ing’ 누락은 일종의 실수와 같이 불규칙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사후영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분사 오류 분석결과(N=27)

오류 항목	사전시험	사후시험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현재분사 오류(비율)	7(17.07%)	4(6.06%)	.376	.548
동사 대신 사용	5	4		
‘ing’ 누락	2	0		
과거분사 오류(비율)	8(19.05%)	7(14.0%)	.376	.548
원형동사 사용	6	3		
현재분사 사용	1	3		
‘-ed’ 삽입	1	1		

\* $p < .05$

- (33) 동사 대신 현재분사 사용: When I skiing, I feel very exciting and enjoyable.  
[When I ski, I feel very excited and enjoy it.]
- (34) ‘ing’ 생략: I am study H. A. University in the Philippines now.  
[I am studying at H. A. University in the Philippines now.]
- (35) 과거분사 대신 원형동사 사용: I have some plans to make my mind and body more relax.  
[I have some plans to make my mind and body more relaxed.]
- (36) 과거분사 대신 현재분사 사용: I’m interesting Philippines life.  
[I’m interested in the life of the Philippines.]
- (37) ‘-ed’ 삽입: Then I’ll be lazyed, so I won’t want to do anything.  
[Then I’ll be lazy, so I won’t want to do anything.]

과거분사 오류는 현재분사 오류와는 특성을 달리하며 3가지 패턴으로 발생하였다. 그 중 과거분사 대신 원형동사를 사용(예문35)한 유형이 가장 빈번하였고 이런 오류는 특히 규칙동사들에서 발생하였고 규칙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분사가 주격보어로 사용된 문맥에서 과거분사와 현재분사를 혼돈(예문36)하여 빚어진 오류는 사후에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과거분사에 관한 학습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불필요하게 ‘ed’를 삽입(예문37)한 오류도 두 작문 모두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것은 문법규칙의 과일반화 또는 과잉의식어법에 의한 어형적 사용의 오류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목표언어 학습과정에서 문법적 규칙들에 관한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성을 확립하지만 언어에 대한 노출이 충분치 않거나 복잡한 규칙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 V. 결론

본 연구는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영문법 학습에 대한 효과를 조명하기 위해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동안 해외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은 대학생들이 한 학기 시간차를 두고 작성한 두 영작문에 나타난 문법항목들(부정사, 동사 및 분사)의 사용과 오류를 조사한 뒤, 사전·사후영작문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를 검정하여 학생들의 영문법 사용 면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어학연수를 받은 이후에 더 많은 수의 단어를, 더 복잡한 구조의 문장에서 사용하여 문장의 길이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문장 수는 감소하였다. 이로 볼 때, 전반적으로 연수 이후 학생들의 문장 생성 능력이 향상되고 복잡한 형태의 문장들을 쓰려고 시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학기 해외어학연수 이후 통사적 요소인 부정사의 사용량이 증가하였지만 오류 또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어휘적 사용과 오류는 어학연수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어형오류는 사전·사후영작문 사이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하여 어학연수 동안 학생들의 문법적 형태소에 대한 정확성이 향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어학연수 동안 어형적 규칙들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문장 속에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향상한 것으로, 한 학기 해외어학연수가 통사 및 어휘 학습보다 어형 관련 학습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반영한다.

이상과 같이, 한 학기 동안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영어학습을 받은 이후 대체로 학생들의 문장 구성 능력과 문법적 형태소에 대한 사용은 다소 증진하였지만, 통사적 및 어휘적 사용 능력과 문법적 정확성은 크게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해외 어학연수가 집중적으로 목표언어만 학습하여 언어입력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언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적 이점을 제공하긴 하지만, 한 학기라는 기간 안에 문법적인 문장을 생성해내는 문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문법 교육에 대한 시사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연적 습득을 촉진시키는 제 2언어환경에서 영어를 학습하게 되더라도 성인 학습자는 언어의 자연스러운 입력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문법 지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Long(1983)은 자연적 습득환경에서 보다 학습을 통하여 형태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는 경우가 습득의 속도 및 최종 능숙도의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하였다. 더욱이 언어입력이 한정적인 EFL 환경에서는 명시적인 문법 지도가 부족한 언어입력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습득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미진. (2006).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문법 지도*. 미발간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춘천.
- 한지운. (2008). *EFL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영어문법교육에 관한 연구*. 미발간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부산.
- Bachman, L.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echt, R., Davidson, D., & Ginsberg, R. (1995). Predictors of foreign language gain during study abroad. In B. Freed (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a study abroad context* (pp. 37-66). Amsterdam: Benjamins.
- Brecht, R., & Robinson, J. (1995). On the value of formal instruction in study abroad: Student reactions in context. In B. Freed (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a study abroad context* (pp. 317-334). Amsterdam: Benjamins.
- Brown, H. (1994).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 Brumfit, C. (1984). *Communicative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Carroll, J. B. (1967).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levels attained by language majors near graduation from college. *Foreign Language Annals*, 1, 131-151.
- Celce-Murcia, M. (1991). Grammar pedagogy in second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TESOL Quarterly*, 25(3), 459-480.
- Cha, Miyang. (2010). A comparison of the use of lexical words in study abroad and at home contexts. *Modern English Education*, 11(2), 216-234.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The MIT Press.
- Cox, R., & Freed, B. (1988). The effects of study abroad on form and function: A comparison of students who have been abroad and those who have not.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32(3), 331 – 353.
- DeKeyser, R. M. (1991). Foreign language development during a semester abroad. In B. Freed (Ed.),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and the classroom* (pp. 104-119). Lexington, Mass.: D. C. Heath.
- Dyson, P. (1988). *The year abroad*. Report for the Central Bureau for Educational Visits and Exchan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cis, N. W. (1954). Revolution in grammar. *Quarterly Journal of Speech*, 40, 299-312.

- Freed, B. F. (1995). What makes us think that students who study abroad become fluent? In B. Freed (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a study abroad context* (pp. 123-148). Amsterdam: Benjamins.
- Freed, B., Segalowitz, N., & Dewey, D. (2001). *Comparing L2 learning in study abroad intensive immersion, regular classroom contex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ACTFL), Washington, DC.
- Guntermann, G. (1995). The peace corps experience: Language learning in training and in the field. In B. Freed (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a study abroad context* (pp. 149-169). Amsterdam: Benjamins.
- Hahn, Hye-ryeong. (2000). *UG availability to Korean EFL learners: A longitudinal study of different age grou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Huebner, T. (1995). The effects of overseas language programs: Report on a case study of an intensive Japanese course. In B. Freed (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a study abroad context* (pp. 171-193). Amsterdam: Benjamins.
- Hymes, D. (1974).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An ethnographic approa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afford, B. A. (2004). The effect of the context of learning on the use of communication strategies by learners of Spanish as a second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6*(2), 201-225.
- Lapkin, S., Hart, D., & Swain, M. (1995). A Canadian interprovincial exchange: Evaluating the linguistic impact of a three-month stay in Quebec. In B. Freed (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a study abroad context* (pp. 67-94). Amsterdam: Benjamins.
- Larsen-Freeman, D. (2001). Teaching grammar.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f foreign language* (pp. 251-265). Boston: Heinle & Heinle.
- Larsen-Freeman, D., & Long, M. (1991). *An introduction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f research*. New York: Longman.
- Long, M. (1983). Does second language instruction make a difference?. *TESOL Quarterly, 17*(3), 359-382.
- Marriott, H. E. (1995). Acquisition of politeness patterns by exchange students in Japan. In B. Freed (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a study abroad context* (pp. 197-224). Amsterdam: Benjamins.
- Pellegrino, V. A. (1998). Student perspectives on language learning in a study abroad context. *Frontiers, 4*, 91-120.
- Pienemann, M. (1984). Psychological constraints on the teachability of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6*(2), 186-214.

- Radford, A. (1997). *Syntactic theory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gan, V. (1998). Sociolinguistics and language learning in a study abroad context. *Frontiers, 4*, 61-90.
- Thornbury, S. (1999). *How to teach grammar*. Essex: Longman.
- Weaver, C. (1979). *Grammar for teachers: Perspectives and definitions*. Illinois: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 Widdowson, H. (1979).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부록

### 영어능력시험

#### A. 인적 사항

1. 이름: \_\_\_\_\_
2. 성별: 남자 / 여자
3. 나이: \_\_\_\_\_
4. 학년: \_\_\_\_\_
5. 전공: \_\_\_\_\_
6. 영어학습기간: \_\_\_\_\_ 년
7. 해외 거주 또는 해외어학연수 경험: 예 / 아니오
8. 위의 대답이 '예'인 경우, 해외 거주 또는 어학연수 기간: \_\_\_\_\_ 년/개월

#### B.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1-10)

1. New employees \_\_\_\_\_ only a small salary during the first six months.  
(A) win (B) achieve (C) obtain (D) earn
2. Airline ticket prices \_\_\_\_\_ when the cost of fuel increases.  
(A) ascend (B) grow (C) rise (D) elevate
3. Mr. Maxwell will interview \_\_\_\_\_ applicants from 9:00 until 11:00 today.  
(A) job (B) occupation (C) work (D) career
4. Is the annual report \_\_\_\_\_ yet?  
(A) avail (B) available (C) availability (D) availing
5. The \_\_\_\_\_ of the new building will start next month.  
(A) constructive (B) construction (C) construct (D) constructed
6. Mr. Nolde called to cancel his \_\_\_\_\_.  
(A) schedule (B) calendar (C) appointment (D) time
7. The office required that all employees park in their \_\_\_\_\_ spaces.  
(A) signed (B) assignment (C) assigned (D) significant

8. \_\_\_\_\_ the meeting, Ms. Tran missed several important phone calls.  
 (A) Although (B) In spite of (C) Because (D) During
9. Mr. Cruz needs someone to \_\_\_\_\_ him with the conference display.  
 (A) assume (B) assign (C) assent (D) assist
10. The new insurance plan is especially \_\_\_\_\_ with employees who have families.  
 (A) popularized (B) popular (C) populated (D) popularity

C. 다음 밑줄 친 부분들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1-20)

11. The receptionist receives packages and held them until the proper department is notified.  
 A B C D
12. The director hired a new salesperson who he had worked for our largest competitor.  
 A B C D
13. The bad news about the new contract have finally been conformed.  
 A B C D
14. Jennifer is used to working by big budgets.  
 A B C D
15. Since three years, the recruiter recommended that I take a refresher course.  
 A B C D
16. No matter how soon it takes, this research will be completed.  
 A B C D
17. Every worker, including I, wants a bonus.  
 A B C D
18. Your attitude regards your work will not help your cause.  
 A B C D
19. The plane made a precarious land in the snowstorm.  
 A B C D
20. The old boxes were extreme poorly built.  
 A B C D

D. 다음 지문들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21-30)

The company provides a benefit pension plan covering all employees. Benefits are based on years of service and on the employee's highest salary. Both the company and employee make contributions to the plan according to government regulations. Employees eligible to receive pension funds are paid monthly through the plan.

21. On what are benefits from this plan based?  
 (A) Years at the company and salary (B) Bonuses

- (C) Starting wage                      (D) Company profits
22. Who makes contributions to the plan?
- (A) The employer                      (B) The government
- (C) The employee                      (D) The company and the employee

Busy people don't want their vacations to be a hassle. That's why all-inclusive resorts are becoming popular. At these resorts, one price includes all meals, drinks, lodging, and sightseeing. Golf, tennis, and swimming are available for free. Other sports, such as scuba diving, deep sea fishing, and rock climbing, may require separate fees for equipment rental but instruction and excursions are included. Many resorts also include children's activities as part of the package. Check with a travel agent to find an all-inclusive resort with activities you would enjoy.

23. What does it mean to be an "all-inclusive" resort?
- (A) Anyone can stay there.              (B) One price includes food, lodging, and activities.
- (C) They take care of your children for you.      (D) They tell you where to go sightseeing.
24. Why are all-inclusive resorts popular?
- (A) They are not as much trouble.              (B) They are cheaper.
- (C) They are busy.                      (D) They are far away.
25. What might cost extra at these resorts?
- (A) Children's activities              (B) Sports equipment rental
- (C) Transportation for sightseeing              (D) Hotel maid service
26. What is the best way to find an all-inclusive resort?
- (A) Ask a busy person.                      (B) Consult a travel agent.
- (C) Find out where people play golf.              (D) Call some hotels.

Employees work best if they are happy. As a supervisor, there are things you can do to increase employees' job satisfaction. Make sure your employees understand what they have to do. Give them proper and thorough training so they can do it well, and give them opportunities to bring that training up to date. Make sure that employees have freedom to exercise their own judgment, and to point out problems. Most of all, make sure that you tell them they are doing a good job, not only during special assignments but when they maintain a high standard of routine work.

27. When do employees do their best work?
- (A) When they are challenged.              (B) When they are happy.
- (C) When they are busy.                      (D) When they are pressured.
28. Once you have trained an employee, what should you do?

- (A) Provide ways to update training. (B) Make the employee train others.  
(C) Move the employee to a different job. (D) Control his or her chance to practice.
29. What is NOT mentioned as a freedom employees should have?  
(A) Exercise their own judgment (B) Offer suggestions  
(C) Make changes (D) Point out problems
30. What should a boss praise employees for?  
(A) Exercising (B) Doing consistently good work  
(C) Going through a training program (D) Staying happy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차미양

남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331-70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21

Tel: (041) 580-2558/ H.P.: 010-5533-9634

Email: miyangcha@nsu.ac.kr

신인영

남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331-70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21

Tel: (041) 580-2557/ H.P.: 010-9115-3776

Email: 6000@nsu.ac.kr

Received 16 December 2012

Revised 01 February 2013

Accepted 15 February 2013